

## 음악이 좋아...



## 젊음이 좋아...



지난 23일 광주시 동구 서석동 48-2번지, 광주아코디언 동호회 연주실, 20여 평의 작은 연주실에는 10여 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코디언으로 ‘목포의 눈물’ ‘칠갑산’ 등을 연주하고 있다.

자바리를 부풀렸다 줄이며 원손으로 키보드를 치고 오른손으로는 멜로디를 위한 버튼을 밀새 없이 누른다.

구성진 가락이 울리는 듯 하더니 흥느끼는 듯한 애처로운 애드립이 듣는이의 애간장을 녹인다.

이상일(68) 원장의 지도에 맞춘 연주가 끝나자 서로를 격려하는 박수가 쏟아진다.

이들 할아버지·할머니의 얼굴에선 연주를 마쳤다는 성취감이 자랑스럽게 베어나온다.

‘광주아코디언 동호회’는 지난 2003년 이상일 원장의 지도 아래 뒷장을 올렸다. 처음 동호인 수는 15명 수준이었으나 이제 30여 명으로 식구가 늘었다. 하지만 딱히 30여 명이라 단정짓기는 어렵다. 들고 나는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때는 50명도 됐다가 어떤 때는 20명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회원들이 유동적인 것은 광주아코디언 동호회 회원들이 58세부터 70·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로 이루어져 있어 강체성도 없고, 의무도 없다. 다만 음악이 좋고 아코디언이 좋아서 연주실에 나와 연습을 한다.

이 원장은 “회원이 모두 인생 황혼기를 맞은 분들이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만큼은 젊은 사람들 뜻치 않다”며 “노인분들도 6~7개월 배우면 혼자 연주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윤호(76) 원장은 동호회 회원 중이 원장과 함께 연주를 할 정도로 실력파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꿈꾸던 연주가의 소망을 지난 2001년 이 원장을 만나 이룬 송 원장은 음악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는 등 아코디언 전도사가 됐다.

다. 송 원장은 100여 곡의 노래를 연주할 정도로 이 원장의 애재자 가 됐다.

이정자(여·65)씨는 이제 입문하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주실을 찾는다. “아코디언을 배우고 부터는 노년의 생활이 활력이 넘치고 즐거워졌다”는 이 씨는 노인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악기だ라고 말했다.

〈이상일 회장〉

이돈삼(71) 원장은 이제 6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번지 없는 주막’ 등 몇곡은 이제 자연스럽게 연주할 정도의 실력을 쌓았다. 이 원장은 “아코디언 연주를 통해 잡념도 없어지고 스트레스도 없어져 하루가 즐겁다”고 말했다.

이들을 이렇게 훌륭한 연주자로 탈바꿈 시킨 이상일 원장은 장애를 극복한 의지의 음악인이다. 45년 아코디언 와질을 걷고 있는 이 원장은 2세 때 중증 천연두를 앓아 청력을 상실했고, 얼굴에 흉터가 남았다. 하지만 그는 불행을 불행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연히 접하게 된 아코디언 세계로 빠져든 이 원장은 고2 때 고병규 조선대학교 교수에게 5년간 사사하면서 천재성을 인정받아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치게 된다.

하지만 지난 1973년 중풍을 앓으면서 오른손을 쓰지 못할 정도로 아픔을 겪었으나 다시 재활을 통해 끗곳이 일어나 지난 1998년 현재 아코디언 교습소 및 연주실을 열었다.

이 원장은 국내 최고의 연주 실력 뿐 아니라 그 만의 독특한 악보제작을 통해 초보자들이 쉽게 아코디언의 세계로 발을 디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그가 연주하는 ‘라콤파르시타’, ‘언더 투 이글’, ‘경기병 서곡’ 등은 국내에서 독보적인 연주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3년 연주 경력의 김천기(64) 원장은 “이 원장의 지도가 없었으면 이렇게 훌륭한 연주자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며 “손가락 운동등 아코디언은 노인들 치매 예방에도 좋은 동반자다”고 말했다.

동호회 회원 중 가장 나이가 어린 한복동(49)씨는 “회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리게 봤지만 어르신들과 함께 아코디언을 연주하며 스트레스도 풀고 음악을 통한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들의 소망은 정기연주회를 갖는 것이다. 회원들이 모두 고령이다 보니 들고 나고가 불규칙해 정기연주회를 갖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광주아코디언동호회 회원들은 좀더 연주 실력을 쌓아 불우 시설에서 봉사 활동을 꿈꾸고 있다.

자바리를 당기고 밀며 오른손과 왼손을 분주히 눌려 연주를 하는 광주아코디언동호회 회원들의 황홀의 찬가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함을 보여주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사진=나명주기자 mjna@

■ 광주아코디언 동호회

70~80대 할머니·할아버지 주축  
아코디언 선율에 맞춰 ‘황혼찬가’  
복지시설서 공연하는 게 작은 소망



70~80대의 할아버지 할머니회원들로 구성된 ‘광주아코디언 동호회’는 아코디언 연주를 통해 건강을 지키고 힐링과 즐거움을 나누고 있다. 이상일 원장의 지도 아래 합동연주를 하고 있는 회원들.



## 봉/선/동 아이엔리시아

출신회원 많아 봉진회, 세미나, 작품 모임 및 출시행사로 활동하세요.

전부원 모임과 서비스를 대기장에 할증하는 50% 할증 기관으로 활동합니다.

### 봉진회

### 세미나

### 작품 모임

### 출시행사



# 당신의 빛은 긴장하십니까?

상의 반경을 확장해보세요. 그리고 출동수에 대해서 배내세요.



062) 671-1199